

|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|
| 배포일시 | 2020. 1. 30.(목) 10:00 (총 5매) | 보도시점 | 2020. 1. 31.(금) 10:00 |
| 담당부서 | 기상청 관측정책과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| 담당자 | 과장 장고 과장 박정 고위공직 직급 김승 성명 석명범 |
| | | 전화번호 | 02-2181-0692 033-650-0450 064-780-6602 |

**학·연·관·군 협업으로
 강원·영동 양간지풍과 대설 원인을 밝힌다!**
 - 기상청, 2020 강원·영동 공동 입체기상관측 시행 -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2월 1일(토)부터 4월 30(목)까지 3개월간 학·연·관·군이 협업하여 강원·영동지역의 공동 입체기상관측을 수행한다.
 - 이번 입체기상관측은 동서 폭이 좁고 가파른 산지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기상 특성 분석 및 기상관측 자료 확보를 통해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.
 - 강원지방기상청은 3차원 기상관측 자료를 확보하고자, 지난해부터 공동 입체기상관측을 추진한 바 있다.

- 이번 입체기상관측에는 기존 관측망 외에 △기상항공기(나라) △기상선박(기상1호) △기상관측차량 등이 동원되어 강원 영동 지역과 동해안의 지상·해상·상층 3차원 기상관측 자료를 확보한다.
 - 특히, 지난해 봄철 대형산불 원인 중 하나였던 강풍(양간지풍)을 분석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△풍상측(바람이 불어오는 쪽) △정상 △풍하측(바람이 불어가는 쪽)까지 입체기상관측을 확대하여 시행한다.

□ 이번 입체기상관측은 강원지방기상청·국립기상과학원 공동 주관으로, 14개 기관*이 참여하여 78종 720대**에 달하는 다양한 기상관측 장비를 동원해 여러 기상요소를 동시에 관측한다.

*14개 기관: 강릉원주대학교, 공군제18전투비행단, 해군제1함대, 동해해양경찰서, 동해수산연구소, 동부지방산림청, 국립산림과학원, 동해안산불방지센터, 강원도, 기상청 관측기반국, 강원지방기상청, 국가기상위성센터, 기상레이더센터, 국립기상과학원

**** 공동 입체기상관측 관측장비 현황**

- 지상관측: 13종 648대(ASOS, AWS, 3D풍향풍속계, 연직강우레이더, 운고계, 적설계 등)
- 해양관측: 7종 11대(기상관측선, 해군해경 함정, 수산과학조사선, 표류부이, 해상부이 등)
- 고층관측: 5종 13대(레윈존데, 연직바람관측장비, 윈드라이더, 라디오미터)
- 항공관측: 28종 45대(기상항공기, 드롭존데, 공항기상관측장비 등)
- 원격관측: 25종 3대(천리안위성, 기상레이더 등)

○ △강원지방기상청은 레윈존데* 등의 특별관측과 모든 입체기상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공유하며, △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항공기로 동해 중부 해상 상공에서 드롭존데*를 낙하하여 낮은 고도의 기상관측을, △강릉원주대학교는 레윈존데, 풍향·풍속, 운고 등을 관측한다.

*존데 : 상층 대기의 △기온 △기압 △습도 △바람 등을 관측하는 기상관측 장비로 지상에서 관측장비(존데)를 풍선에 매달아 띄워 상층 30km까지 관측하는 레윈존데와 항공기로 상공에서 낙하하여 관측하는 드롭존데가 있다.

○ △기상레이더센터 △공군제18전투비행단은 기상레이더 관측을, △해군제1함대 △동해해양경찰서 △동해수산연구소는 동해 중부 해상에서 기상을 관측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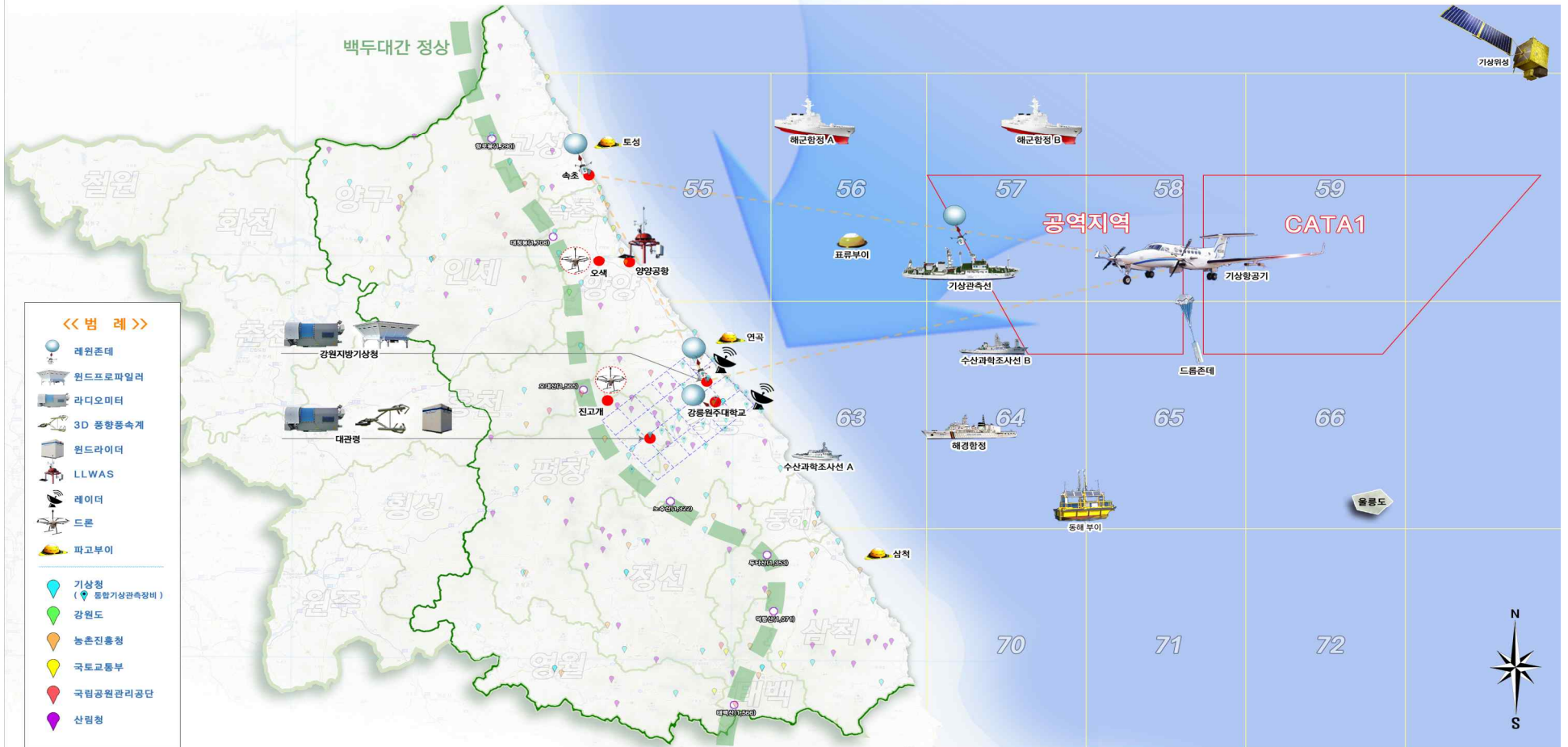
○ 관측결과는 동해안 양간지풍과 강원·영동 대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개념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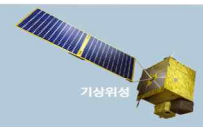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공동 입체기상관측을 통해 확보한 상세한 기상관측 자료가 대설, 강풍, 산불, 호우 등 위험기상의 감시 및 예측성을 높여 자연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 : 공동 입체기상관측 기상관측망

강원영동 동풍 기상관측망

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





강원영동 양강지풍 기상관측망

